

• 여성협회 소식 •

여성의 리더십, 여성의 네트워크

조은정 / 조앤리인터내셔널컨설팅 대표



▲ 조은정 대표

오늘날 직장에는 최고 경영자(CEO)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야망 찬 유능한 여성들이 넘쳐나고 있다. 기업구조에도 벤처기업의 등장을 시작으로 기존의 정형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기업의 모습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부를 만한 변화가 일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란 다름아닌 여성이다.

얼마전의 일이었다. 함께 일하는 group과 기업 M&A 권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 여자 분이 계시다니 조금 놀랐습니다.”라는 첫 인사말을 들었다. 분명 리더십의 모델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컨설팅 업계에서도 여성이, 그리고 여성스러움이 더 과위를 발휘 될 때가 있다.

여성의 꼼꼼함으로 사업부문을 검토하고 투자여부를 결정짓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전략을 세울 때나, 투자 스트럭처를 짜낼 때도 여성으로서의 세심한 시각으로 제안을 하다보면 남성들도 오히려 그 결정에 많은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여성스러움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몇 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성들에 있어서 강한 인맥 네트워크 처럼 여성 기업인들끼리의 단합도 중요하며 남성과 함께 공조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위치에 오른 1세대 여성들 대부분이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면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남성적 모델, 다시 말해 구시대의 경영 방식을 따랐다. 물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낡은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새로운 룰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의 모델 여성’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성들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2003년 여성부 여성 IT전문교육 사업 착수식

협회는 삼성SDS와 · 이화여대 · 비트컴퓨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여성부 여성IT 전문교육 최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프로젝트 수행을 총괄하는 삼성SDS와 한국여성벤처협회 · 이화여대 · 비트컴퓨터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 한빛소프트가 교육 위탁기관으로 참여한다.

삼성SDS 교육기관인 삼성멀티캠퍼스는 IT기반과정 · 웹디자인 고급과정 · IT기획 전문 과정 · 재직자 스کیل업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교육생 모집과 취업지원 활동 등을 맡게 된다.

이번 여성 IT 전문교육은 여성부가 ‘여성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2002~2006년)’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간 1080명 양성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고급인력 700명 양성을 목표로 기존 미취업자와 대졸 여성외에 현업 재직자 · 재취업자 · 창업희망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SDS 교육기관인 삼성멀티캠퍼스는 IT기반과정 · 웹디자인 고급과정 · IT기획 전문 과정 · 재직자 스کیل업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교육생 모집과 취업지원 활동 등을 맡게 된다.

또한 한국여성벤처협회 · 이화여대 · 비트컴퓨터는 쇼핑몰 마스터, e-Biz 전문기획, 자바 프로그래밍 교육을 맡고, 한빛소프트는 애니메이션 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등 여성친화 교육을 위탁받아 각각 실시한다.



▲ 이화여대 천윤필 팀장, 한국여성벤처협회 한은숙 사무국장,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이사, 이화여대 정인성 원장, 삼성SDS 류병수 상무, 한국여성벤처협회 정성자 이사, 한빛소프트 최영복 이사,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수진 강서센터 관장, 김영남 성북센터 관장, 김인선 서초센터 관장(왼쪽부터)